

‘실력파’ 이재인·‘당돌한’ 전소니·‘기대주’ 김혜준

중2 이재인 ‘사바하’ 1인2역
‘악질경찰’이 발굴한 전소니
김혜준 ‘미성년’ 스토리의 축

스크린에서 몇 년간 꾸준히 약진해온 신인들, 그 가운데서도 여성배우들이 올해 더욱 대담하고 활발한 도전에 나선다. 예측하긴 이르지만 연말 다양한 영화상의 신인상 선정이 주연상보다 치열할 가능성도 크다.

신예 이재인(15)과 전소니(28), 김혜준(24)이 상업영화 데뷔작이자 첫 주연 영화를 차례로 내놓는다. 저마다 경쟁률 높은 오디션을 통과했고, 남다른 실력을 드러내면서 함께 작업한 선배들로부터 ‘신인답지 않은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크린 셋별’을 먼저 예약한 주역은 ‘사바하’(감독 장재현·제작 외유내강)의 이재인이다. 20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영화에서 이재인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상징하는 소녀와 ‘그것’으로 불리는 소녀의 쌍둥이까지 1인2역을 소화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진학하는 10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예너지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강원도 원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재인은 서울을 오가면서 단편·독립영화에 출연하며 키운 실력을 ‘사바하’에 쏟아냈다. 하이라이트 장면을 위해 삭발까지 감행한 그와 호흡을 맞춘 이정재는 ‘자



‘사바하’의 이재인과 ‘악질경찰’의 전소니, ‘미성년’의 김혜준(왼쪽부터)이 스크린의 새로운 별이 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실력과 재능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사진제공 | 카라멜이엔터·메니지먼트 숲·엔유엔터테인먼트

신이 해야 할 모든 걸 표현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했다.

전소니는 3월21일 개봉하는 ‘악질경찰’(제작 청년필름)로 관객 앞에 선다. 악질적인 경찰 이선균과 맞붙어 그를 자각하게 하는 캐릭터다. 연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역할인 만큼 연출자 이정범 감독은 적역을 찾는 데 고심해왔다. 그러다 오디션에 응시한 전소니를 발견한 뒤 곧바로 캐스팅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은 “당돌함과 남다른 감수성을 지닌 연기자”라고 했고, 이선균은 “보자마자 ‘대박이야’를 외쳤다”며 만족해했다.

뒤를 잇는 김혜준은 배우 김윤석의 감독 데뷔작인 ‘미성년’(제작 레드피터)의 얼굴이다. 상한기 개봉을 준비하는 영화에는 주연까지 맡은 김윤석을 비롯해 엄정아, 김소진 등 쟁쟁한 배우들이 대거 모였다. 그 틈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김혜준은 어른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17살 여고생을 연기한다. 김윤석의 지도 아래 얼마만큼 역할을 드러낼지 관심을 모은다.

이들의 등장은 이미 영화계 신예를 내세워온 기획사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은 것이기도 해 눈길을 모은다. 박소담을 발굴해 ‘검은 사제들’에 출연시킨 카라멜이엔터는 이재인의 독립영화 참여를 독려했던 연기력을 쌓도록 이끌었다. 지난해 ‘마녀’의 김다미를 배출한 엔유엔터테인먼트는 3년 전 독립영화에 출연한 김혜준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해 연기 활동을 돕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해시태그 컷



바비인형 효린

가수 효린이 한껏 물이 오른 미모를 과시했다. 대중적으로 시도하기 힘든 금발의 헤어스타일과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마치 바비인형을 떠오르게 한다. 여기에 시크한 표정까지 지어 모델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뽐내는다. 독특한 모양의 귀걸이와 진주 장식이 돋보이는 의상으로 스타 일리시한 매력도 놓치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나날이 예뻐지고 있는 그의 미모에 모두가 시선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팬들은 “미모 포텐 터졌다” “섹시미와 여성미의 공존” 등 반응으로 호응했다.

#스포츠투동아 #효린 #금발머리 #빨간입술 #인형?

환상특급!
바이칼호수 환바이칼 열차와
알함섬 5일

5월 20일 출발

마중여행사 02-730-2270

지상파 3사 하노이 빅매치

(북미 정상회담)

MBC·SBS 드라마 대신 특별 생방송
KBS 1TV도 특집 토론에 뉴스 편성

지상파 방송 3사가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편성을

대폭 변경했다. KBS·SBS·MBC는 관련 뉴스 특보 체제를 갖춰 드라마와 일부 예능프로그램을 결방한다.

26일 나온 편성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27일과 28일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북미 정상회담 현장을 생중계하며 뉴스 특보 체제를 유지한다.

KBS는 1TV 채널에 북미 정상회담 판

련 특집 토론프로그램과 뉴스를 몰아서 편성했다. 하지만 2TV는 27일과 28일 예정된 프로그램을 모두 정상적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MBC는 27일 밤 10시 뉴스 특보를 끝낸 후 수목드라마 ‘봄이 오나 봄’과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를 내보낸다. 하지만 28일에는 ‘봄이 오나 봄’을 2안으로 두고 예능프로그램 ‘킬빌’을 결방하며 뉴스 특보를 연속 방송할 예정이다.

SBS도 비슷하다. 새 수목드라마 ‘빅

이슈’의 당초 방송 일정을 한 주 미뤄 다음달 6일 첫 방송하기로 하는 등 27~28일 드라마 시간대를 모두 뉴스 특보로 채웠다. 예능프로그램 편성도 유동적이다. 27일 밤 11시10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정상 방송되지만, 28일 같은 시간대에 방송할 예정인 ‘가로채널’은 2안으로 편성해 결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상파 방송 3사는 하노이에 현지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데이터 존’ ‘48시간 특별 생방송’ 등 다양한 기획을 마련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구두보다 멋진 구두, 시선을 사로잡다 인도 송아지 가죽구두

‘300g의 유혹’ 샌들처럼 가볍하다
‘세련된 인도가족’ 신을수록 멋스럽다

‘남자는 구두로 첫인상을 남긴다’는 말을 아시는가? 패션의 기본은 뒀나뒀나해도 구두이며, 구두는 패션의 완성이기도 하다. 세련된 신사가 되고 싶다면 구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남자의 스타일은 구두에서 시작되고, 구두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두는 전체 실루엣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구두들 중에서 한켠의 세련된 구두를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늘, 남자 구두의 멋을 제대로 보여주는 구두를 만나보시라 당신에게 ‘크리스 정장구두’를 추천한다.



BIG SIZE
285까지

세련된 스타일로 편안하게 신는다 ‘크리스 정장구두’

인도는 소고기 수출 1위국가이자 세계 가죽생산의 10%를 차지하는 나라다. 생산되는 가죽의 70%를 유럽에 수출할 정도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가죽 수공업품으로 유명하다. ‘크리스 정장구두’는 고급 인도 송아지가죽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잔잔하고 자연스러운 문양으로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표면이 매끄럽고 내구성이 강해 품격까지 만족시킨다.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길들여져서 정이 가고 멋스러움이 더해지는 신발이다. 송아지 가죽은 소가죽에 비해 부드럽고 결이 섬세하며,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고 질겨서 고급신발에 사용하는 고품질 가죽이다. ‘크리스 정장구두’는 가벼움과 편안함이 돋보이는 신발이다. 정장구두이지만 무게가 300g에 불과한 경량구두로, 오래 신어도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웃솔은 우레탄 고무창을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마모율이 강하다. 인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높이인 3.5cm의 굽높이를 적용하여 폭신하며 착화감도 뛰어나다. 세련된 스타일로 클래식 정장뿐만 아니라 캐주얼로 신어도 잘 어울린다. 튼튼하고 가죽면이 고운 엄선된 고급가죽으로 국내생산하여 품질을 믿을 수 있다.

수제화식 공법
100% 국내생산



블랙

브라운

제품명 크리스 정장구두 색상 브라운, 블랙
사이즈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40, 285는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할인특가 1켤레 ₩278,000 → ₩119,000 2켤레 ₩228,000
제품신청 1588-9440 쇼핑몰 www.dasim.co.kr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심, 카드결제가능 (3-5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